

육지와 바다 지명의 표준화와 이의 정치적 도구화

Naftali Kadmon

(히브루대학 교수)

- 정치적 도구로서의 지명

육지와 바다 지명은 종종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정치적 환경이나 맥락 내에서 지명이 사용되어질 때 명백히 나타난다.

- 단일 주권을 벗어난 지형에 대한 명칭

국가적 표준화는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 전 단계이다. 국가적 표준화는 정부 관계 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반면에 국제적 표준화는 선의와 협조에 의해서 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단일 주권을 벗어난 지형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나거나 해양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해저로 뻗어 있는 경우이다.

1967년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의 결의안 8번에 의하면 상충되는 지명과 그 적용에 있어 이해 당사국들이 서로 노력하여 합의점에 이를 것을 추천하고 있다. 1972년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공식화된 보다 구체적인 결의안 25번에 의하면, (1) 특정 지리적 지형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지명을 가진 나라들은 단일의 명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만일 단일 지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언어로 된 지명들이 적용되는 것이 국제 지도 작성 상의 일반적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82년 제4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 20번에 의하면,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exonym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exonym은 국가적으로 수용된 표준 지명과 함께 괄호에 넣어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 또는 국가들의 서로 다른 endonym을 갖는 지리적 사물에 대해 하나의 표준화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희망하는가? 모순적이게도 이 경우에 있어 표준화는 exonym을 사용함으로써 주로 그 지리적 사물과는 거의 상관없는 언어로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독일 지명의 Donau로 시작되는 강은 이름이 여섯 번 바뀌다가 결국 Dunaj라는 이름으로 흑해로 흘러들어 간다. 하지만 영어로 된 exonym인 Danube가 전체 길이 2850킬로미터인 이 강 전체를 지칭한다.

몇몇 국가들은 지명을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통일시키기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인다. 미국과 캐나다 및 미국과 멕시코간의 국경 지명 합의를 위한 정부간 협조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 바다와 해저 이름

1967년의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는 바다와 해저 지형에 대한 표기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다와 해저 이름의 표준화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한 지형에 접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 그 지형에 대한 유사한 이름을 승인하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암시하였다.

- 동해(Tong Hae / Eastern Sea) 또는 Nihon Kai(Sea of Japan) ? 해결책을 위한 제안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한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 명칭이 전통적으로 수용되어 온 Sea of Japan에 대한 가명으로서 한국 지명인 Tong Hae[East Sea]가 국제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전통적 지명인 Sea of Japan이 이 수역에 대한 단일 명칭으로서 유지되기를 요청하였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이 서로 협의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어떤 한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 endonym도 그러한 지형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어 질 수 없다. 각 나라는 지도와 지도책에 그 지형에 대한 자기 나라에서 부르는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바다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이러한 지명들은 보통 endonym들이며, 그 지명들은 각각의 나라들에 의해 관련 바다의 자기 나라 구역(예: 영역)에 한정되어 부여되어야 하는데, 자주 이러한 지명들이 바다 전체로 투영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다는 일본의 서쪽에 그리고 한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유사한 예로써 독일과 네덜란드의 북쪽, Norfolk의 북쪽, 그리고 영국의 동쪽, 덴마크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대서양의 한 부분을 들 수 있다. 이 수역은 영국에서는 North Sea로, 독일에서는 Nordsee로, 네덜란드에서는 Noordzee로 불려지는 반면에 덴마크에서는 Vesterhav(West Sea)로 불려진다. 어떠한 공식적 endonym도 이러한 수역이나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 부여될 수 없다. 즉, 예로 든 수역들이 단일 국가의 관할권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Tong Hae와 Nihon Kai라는 두 가지 명칭은 모두 맞는 것이며 또한 범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25번에 따라,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첫 단계로써 Tong Hae와 Nihon Kai라는 두 가지 명칭이 국제적 사용을 위한 지도들과 지도책들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전 세계의 지도 및 아틀라스 제작사들은 이러한 주요 단계를 인식해야 하며,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권장 사항 이상의 것으로서의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 많은 아틀라스들이 지도상에 English Channel과 La Manche라는 두 가지 이름을 모두 표기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로써 이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들이 되도록 관련 국가들의 언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지도 제작 국가들의 언어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일 명칭을 선택하고 비준하기 위해 서로 모여서 협의해야 한다.

세 가지 정도의 예로써 ① Inner Sea, ② Ancient Sea (왜냐하면 두 가지 이름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③ Sea of the Sun (왜냐하면 한국 쪽에서는 해가 뜨는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쪽에서는 해가 지는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가능한 지명들이 존재한다. 만약 이와 같은 단일 지명이 채택된다면, 지도 제작사들은 단일 지명을 주요 지명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명이 친숙해 지거나 흡수되어질 때까지 수년간은 단일 지명 이전의 지명들을 괄호 안에 또는 작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